

1

ペラペラ 日本語 トピック

고급일본어회화교육용!
SJPT회화시험 고득점대비용!

10

選



でんわ
にほんご

日本語 トピック70選

ワンランク上の表現ができる！

1

日本語 トピック70選

日本語 トピック70選은 고급회화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분, SJPT회화능력시험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분을 위해 구성된 교재입니다.

그 동안 일본어를 사용함에 있어,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데만 급급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거나, 대화 중 늘 사용하는 어휘만을 구사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셨던 분이라면 이 교재를 습득하는 가장 적합한 대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신문,비즈니스,일상생활 속의 소재를 두 주인공의 대화 형식으로 다루었으며, 어휘 구사능력 향상 외에도 상식을 늘려 SJPT회화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공부 방법으로 회화 지문을 강사와 주고 받는 방식으로 충분히 입에 익힌 후, <포인트 어휘를 활용하여 회화문을 만들어>보는 것으로 하나의 chapter가 마무리됩니다.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 만이 아닌,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회화문장 만들기>로 연습을 하여 적당한 때와 장소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본어회화능력 향상에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どうして白飯が2位なの？

山本： 外国人女性が好きな日本の食べ物って何か知ってる？

イー： そうだなあ。やっぱり寿司じゃないの？

山本： 当たり！調査では圧倒的だったらしいよ。

イー： 日本の寿司は本当においしいもんね。以前は安いだけだった回転寿司も、最近じゃばかにできないくらいおいしくなったしね。

山本： ちなみに2位は白飯、3位は刺身だったんだって。何で白飯が2位に入ってるのか理解できないよなあ。他においしいもの、いくらでもあるのに。

イー： 山ポンは日本人だから感じないんだろうけど、外国の米って、炊いてもポロポロしてて、おいしくないんだよね。でも日本のコシヒカリとかって、ご飯につやとか粘り気があって、比べ物にならないくらいおいしいんだって。

山本： へえ、そうなの。



覚えよう~!

やっぱり 역시(やはり의 강조형)
 圧倒的(あつとうてき) 압도적
 ばかにできない 알볼 수 없다, 경시할 수 없다
 ちなみに 참고로
 山ボン 山本 씨의 별명
 炊く (밥 등을) 짓다, 삶다
 ポロポロする 수분이 없어져 작은 알갱이 상태로 모여 있는 모양
 コシヒカリ 일본 고급 쌀 품종중의 하나
 つや 윤기, 광택
 粘(ねば)り気(け) 찰기, 진기
 比べ物にならない 비교가 안 된다

해설

야마모토: 외국인 여성이 좋아하는 일본 음식이 뭔지 알아?

이: 글썄. 역시 스시아니야?

야마모토: 빙고! 조사에서 압도적이었던 모양이야.

이: 일본의 초밥은 정말 맛있지~예전에는 저렴할 뿐이었던 회전 초밥도 최근엔 말이지 우습게 볼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 졌다고.

야마모토: 참고로 2위는 백반, 3위는 회이었대. 왜 백반이 2위인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외에 맛있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이: 야마뽕(야마모토상의 별칭)은 일본인이라 못 느끼겠지만, 외국 쌀은 밥을 지어도 퍼석해서 맛이 없어. 하지만 일본 고시히카리 같은 건, 밥에 윤기와 끈기가 있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맛있다고..

야마모토: 어, 그래~?

漢字の読み書きが苦手な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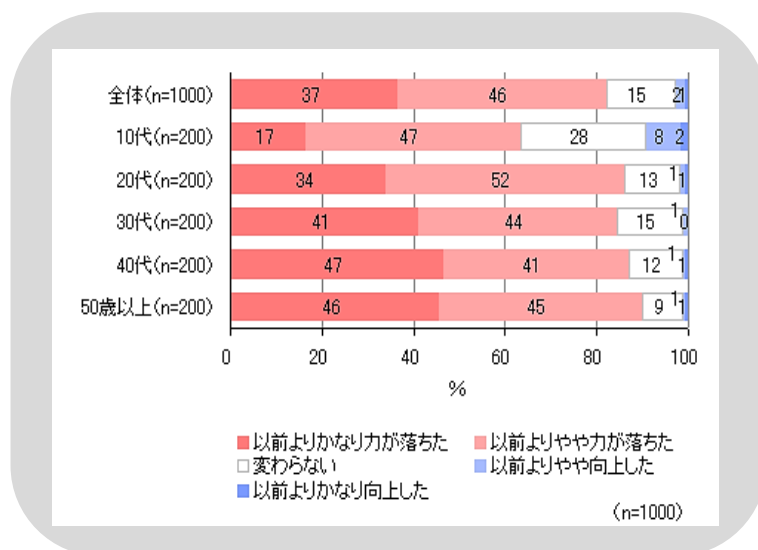
キム： 日本でも最近、漢字の読み書きができない人が多くなったそうですね。

田中： 耳の痛い話ですね。私も読むのは大抵問題ないんですけど、役所なんかで書類書くときって、手書きで書かないといけないじゃないですか。この前なんか、戸籍謄本取るのに、地名の漢字が思い出せなくて結局ひらがなで書いて出したんですけど、顔から火が出る思いでしたよ。

キム： パソコンを使うようになって、直接書くことが、めっきり少なくなりましたからね。

田中： 私も、普段はパソコンで文書作るから、書けなくても仕事には問題なかったんですけど、漢字に変換したときに読み方が同じ熟語がいくつも出てくると、どれを選べばいいか迷うことがあるんですよ。

キム： 田中さんでさえそうなら、韓国人の僕が少しぐらい漢字間違えても許されますよね？



覚えよう~!

耳が痛い 귀가 아프다. 타인의 말이 자신의 약점을 찌르고 있어, 듣는 것이 괴롭다.

大抵(たいてい) 대강, 대개

役所(やくしょ) 관청

手書き 손으로 씀

戸籍謄本(こせきとうほん)を取る 호적등본 교부 받다

顔から火が出る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지다

めっきり 눈에 띄게, 완전히, 현저히

普段(ふだん) 평소

~さえ ~조차, 도

해설

김: 일본에서도 최근 한자 읽고 쓰기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다나카: 찢리는 이야기군요.

저도 읽는 것은 대체로 문제 없는데, 관공서 같은 데서 서류를 쓰려면 직접 써야 하잖아요?

이전에 호적 등본을 떼려는데, 지명의 한자가 생각나지 않아 결국 히라가나로 적어 뒀어요.

너무 창피했던 기억 이예요.

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어 직접 쓰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다나카: 나도 평소에는 컴퓨터로 문서를 만들기 때문에 쓸 수 없어도 일에는 문제 없었지만,

한자로 변환했을 때 읽는 법이 같은 숙어가 몇 개나 나오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헤멜 때 있거든요.

김 :다나카씨조차 그렇다면, 한국인인 나는 조금씩 한자가 틀려도 봐주겠죠.

기본회화

コピペはダメでしょ。

キム : 最近、東大の教養学部の論文の75%がコピペだったって問題になりましたよね。

田中 : ええ。今まであまり表に出てこなかったんですけど、STAP細胞捏造問題で話題になった研究員の論文の一部が実はコピペだったってことで注目され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よ。

キム : どうして、コピペってわかったんですか。

田中 : 今は使われてない試薬の名前がそのまま載ってたそうです。それで「なんで今頃そんな試薬が使われたんだろう」って調べたら別の人が書いた元の論文が見つかったって話ですよ。

キム : そりゃ、まずいですね。「つい、出来心で」ってことなんでしょうけど本当に成功したらノーベル賞ものの研究だったんでしょう。参考にするくらいならまだしも、丸写ししちゃったんですか。

田中 : その事件があってから、コピペ検索システムを導入する大学が増えたそうなんですよ。

キム : 論文書くのって大変だけど、やっぱり手抜きはダメですよ。



覚えよう~!

コピペする 복사해서, 베껴서 붙여 넣기 하다 (Copy and Paste)의 준말
表に出る 겉으로 드러나다
STAP細胞 ‘자극 촉발에 의한 다분화 기능 획득’ 세포
捏造(ねつぞう) 날조
まずい 안 좋다
出来心(できごころ) 일시적인 충동, 우발심
ノーベル賞もの 노벨상을 받을 만한
~ならまだしも ~이라면 몰라도
丸写(まるうつ)시 그대로 베끼기
手抜き(てぬき) 날림, 부실

해설

- 김: 최근 도쿄대 교양 학부의 논문 75%가 베껴서 붙여 넣었다니 문제가 되었군요.
- 다나카: 네. 지금까지 그다지 표면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STAP세포 조작 문제로 화제가 된 연구원의 논문 일부가 사실 코피페였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
- 김: 어떻게 베낀 걸 아셨어요?
- 다나카: 지금은 쓰이지 않는 시약의 이름이 그대로 실렸대요. 그래서 "왜 지금 그런 시약이 사용되었지" 하고 보니 다른 사람이 쓴 원 논문을 봤다는 얘기죠.
- 김: 그럼, 곤란하네요.
- 그만 우발적으로" 라는 얘기겠지만 정말 성공하면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였겠죠.
- 참고 정도라면 몰라도 그대로 베꼈다는 거네요?
- 다나카: 그 사건이 있은 후 코피페 검색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학이 늘었다고 해요.
- 김: 논문을 쓰는 게 힘들지만, 역시 날림은 안 되죠.

ブランドネーミング

パク： 新商品のネーミング、社内公募す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ね。

佐藤： ええ。パクさんも挑戦してみたらどうですか。採用されたら賞金もあるし、売りが良かったら、昇進もあり得るって言ってましたし。

パク： 商品名ってそんなに大事なんですか。

佐藤： もちろんですよ。改名したとたんに大ヒットした商品って結構あるんですよ。例えば、ペットボトルのお茶の「おいお茶」って知ってますよね。あれはもともと「缶煎茶」って名前だったんですけど、改名してから売りが6倍に増えたそうですよ。それから靴下の「フレッシュライフ」は「通勤快足」に改名して売りが10倍にも増えたっていいますし、「山陽相互銀行」は「トマト銀行」に改名してから預金が30%も増えたそうです。それ以外にも、はさみを5つ重ねた形の「きざみ海苔ができます！」ってのはさみは、値段が高かったこともあって見向きもされなかったそうなんですけど「秘密を守ります！」っていう「シュレッダーはさみ」として販売したら100万本も売れたそうですよ。

パク： そうなんですか。じゃ、アラサーの私も改名したら買い手がつくかな。

ハサミ型シュレッダー
秘密を守ります！
持ち運びで大変便利です！TVでも取り上げられました。



この「秘密を守ります！」はコンパクトなはさみタイプのシュレッダーなので、手軽にサツと使えます。

銀行の明細票、重要書類などもその場で切ることができ、個人情報を守ります。



領収書も！



レシートも！

領収書やレシートなどでも使いたい時も、すぐに取り出しにカットすることができます。



覚えよう~!

あり得(う)る 있을 수 있다
大事(だいじ) 중요함, 소중함
~たとたんに ~하자마자, ~하는 순간
ペットボトル 페트병
缶(かん) 깡통, 캔
煎茶(せんちゃ) 중급 품질의 녹차
通勤快足(つうきんかいそく)
通勤快速(통근 쾌속 열차)에서 따옴

山陽相互銀行(さんようそうごぎんこう)
きざみ海苔(のり) 잘게 자른 김
見向(みむ)きもされない 거들떠봐주지 않다
アラサー(アラウンドサーティ의 준말) ([일
본조어 around thirty) 30세 전후를 가리키
는 속어
買い手がつく 구매자가 생긴다

해설

박: 신상품 이름 짓기, 사내 공모하기로 되었다죠..

사토: 예. 박 씨도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채용되면 상금도 있고 매출이 좋으면 승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박: 상품명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토: 물론이에요. 개명하자마자 대 히트한 상품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페트 병 차"오-이 오차"라고 아시죠. 그것은 원래 "깡통 엽차(칸센차)"라는 이름이었는데,
개명하고부터 매출이 6배로 증가했대요

그리고 양말 "프레시 라이프"는 "통근쾌족"으로 개명하고 매출이 10배나 늘어 났다고 하구요.

"산요 상호 은행"은 "토마토 은행"으로 개명하고 예금이 30%나 늘었대요.

그 이외에도 가위를 5개 겹쳐 놓은 모양의 " 김을 잘게 썰 수 있습니다!" 라는 가위는, 값이 비싼 이유
도 있어서 외면 받았던 것 같은데 "비밀을 지켜드립니다!"라는"분쇄 가위"로 판매했더니 100만개나
팔렸다 하고요.

박: 그렇군요.그럼 노처녀인 나도 개명하면 누가 붙을까...

一品食べ放題

パク： 昨日「から揚げ食べ放題」のお店に行ってきたんですけど、友達のおごりだったので思いっきり食べてきちゃいました。

佐藤： え、から揚げの食べ放題ですか。

パク： ええ、このごろ一品食べ放題のお店がいろいろあるんですよ。

例えば、「ピザの食べ放題」とか、「生ハムの食べ放題」とか。

佐藤： へえ、さすが食べ物に詳しいパクさん、よく知ってますね。

パク： 他にも「納豆の食べ放題」や「卵かけご飯の食べ放題」の店なんかもあるんですよ。

佐藤： それじゃ、「うなぎの蒲焼の食べ放題」なんてのもありますか。

パク： さすがにそれはないでしょう。原価が高すぎて元を取るのも大変だと思いますけど。それにお客さんがたくさん来るからと言って必ずしも儲かってるとは限らないみたいです。既に閉店に追い込まれた店もあるようですし。



覚えよう~!

一品(いっぴん) 한 가지 음식
 食べ放題(ほうだい) 뷔페
 思いっきり 마음껏
 生ハム 날햄. 소금에 절인 돼지의 넓적다리
 고기를 건조시키면서 숙성시키거나 훈제한 다음에, 가열하지 않은 햄.
 さすが 역시. (예상·평판대로) 과연.

卵かけご飯 날계란 비빔밥
 うなぎ 뱀장어
 蒲焼(かばやき) 장어구이
 ~なんてのも ~같은 것도
 さすがに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元(もと)を取る 본전을 뽑다
 儲(もう)かる 벌이가 되다, 수지 맞다
 追い込まれる 몰리다

해설

박: 어제 " 닭튀김 뷔페"에 다녀왔는데, 친구가 내는 거라 마음껏 먹고 왔어요.
 사토: 네, 닭튀김 뷔페요?
 박: 네, 요즘 일품 뷔페가 여러가지 있어요. 예컨대 "피자 뷔페"나 "생 햄 뷔페".라든지.
 사토: 아, 역시 음식에 정통한 박상이라 잘 아시는군요.
 박: 그 밖에도 " 낫토 뷔페 " 나 " 계란 덮밥 뷔페 " 가계 같은 것도 있어요.
 사토: 그러면,"장어 구이 뷔페" 같은 것도 있을까요?
 박: 역시 그건 없죠. 원가가 너무 비싸서 본전을 뽑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되요.
 게다가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서 반드시 벌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모양이에요.
 이미 문을 닫은 업소도 있는 것 같고.

猫のたま駅長が「他界」

佐藤： 猫の「たま駅長」がとうとう「他界」しちゃいましたね。

パク： 「他界」って、猫なんだから「死んだ」でいいでしょう。

佐藤： 確かにそうですけど、曲がりなりにも駅長だったわけだし、和歌山電鐵の「社長代理」にまでなったんですよ。それに和歌山県からは「和歌山県観光招き大明神」の称号まで与えられて銅像も作られたっていうのは、それだけ残した功績が偉大だった証拠でしょう。だからやっぱり「死んだ」は失礼じゃないかと。

パク： でも、「たま」にしてみたら、自分が駅長になったり、観光客を誘致したって自覚があるわけじゃないんだから、そこまで気を遣う必要はないと思いますけど。佐藤さん、何でそこまで「たま」のこと気にするんですか。

佐藤： 子どもの頃、飼ってた猫の名前が「たま」で同じ三毛猫だったんですよ。だから、僕の「たま」が生き返ったみたいな気がして…



타마 역장의 장례식



覚えよう~!

曲(ま)がりなりにも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겨우 그럭저럭

和歌山電鐵(わかやまでんてつ)

観光招(かんこうまね)き大明神(だいみょうじん) 관광 초대의 신

(大明神은 신의 이름에 붙이는 높임말)

~にしてみたら ~입장에서 생각하면

氣を遣(つか)う 신경 쓰다, 배려하다, 주위사람이나 일에 세세하게 마음을 쓰다

氣にする 신경 쓰다, 걱정하다

三毛猫(みけねこ) 삼색 털 고양이, 얼룩고양이

生(い)き返(かえ)る 되살아나다

해설

사토: 고양이 "타마 역장"이 마침내 "타계" 했다네요.

박: "타계"라니, 고양이니까 "하늘나라로 갔다"가 맞겠죠.

사토: 그게 맞지만, 뭐 그럭저럭 역장이었던 셈이고, 와카야마 전철의 "사장 대리."까지 됐었어요.

게다가 와카야마현으로부터는 "와카야마현 관광 초대의 신"이라는 칭호까지 받고, 동상까지 만들어 졌다는 것은 나름 남긴 공적이 위대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긴 실례 아닌가 해서.

박: 그렇지만, 타마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역장이 되거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같은 건 자각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토상, 왜 그렇게까지 타마에 대해 신경 쓰는 거예요?

사토: 어릴 적 기르던 고양이 이름이 타마로, 같은 얼룩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타마가 되살아난 것 같아서...

스마ホで見られるハコビジョン

山本： これ、何か知ってる？

イー： いや。何それ。

山本： 「ハコビジョン」だよ。3Dプロジェクトマッピングっていう映像エンターテイメントがあるの知ってるだろう？建物にCG映像を映して幻想的な風景をつくるやつ。

イー： あ、もしかして以前、東京駅でやって、話題になったあれ？

山本： そう、それ。言ってみれば、そのミニチュア版なんだけど、手のひらサイズで、スマホだけで再現できるんだよ。

イー： で、これ、いくらなの？

山本： 500円。食玩だから、これはあくまで付録なんだよ。

イー： じゃ、それにもともと付いてたお菓子って、どんなやつだったの？

山本： 粒ガム1個。

イー： えーっ！ガム1個だけ！？それじゃ、最初からガムなんか付けなくて、おもちゃとして売ればいいんじゃない？

山本： スーパーとかコンビニでも販売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苦肉の策らしいよ。



손바닥 위 3D 영상 <하코비전>
2014 올 해의 장난감



覚えよう~!

プロジェクトマッピング Project mapping
프로젝트 매핑
エンターテイメント 엔터테인먼트
やつ 것. 사물을 난폭하게 부르는 말
幻想的(げんそうてき) 환상적
言ってみれば 바꿔 말하면
ミニチュア版(ばん) 미니어처 판
手のひらサイズ 손바닥만한 크기

スマホ(スマートフォンの 준말) 스마트폰
で(それでの 준말) 그래서
食玩(しょくがん) 완구가 경품으로 달려 있
는 과자
粒ガム(つぶガム) 알 껌
コンビニ(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의 준말) 편
의점
苦肉(くにく)의策(さく) 고육지계, 고육책

해설

야마모토: 이거 뭔지 알아?

이: 아니, 뭐야 그게?

야마모토: "하코 비전"이라는 거야. 3D프로젝트 매핑이라는 영상 엔터 테인먼트라는 게 있는 거 알고 있지?
건물에 CG영상을 비추고 환상적인 풍경을 만드는 것.

이: 아, 혹시 전에 도쿄 역에서 해서 화제가 된 그것?

야마모토: 그래, 그거. 말하자면 그 미니어처 버전인데, 손바닥 사이즈에서 스마트폰만으로 재현할 수 있어.

이: 그래서 이거 얼마나?

야마모토: 500엔. 쇼쿠완이라 어디까지나 부록이야.

이: 그럼 그것에 원래부터 달려있었던 과자는 어떤 거였니?

야마모토: 알 껌 1개.

이: 옹! 껌 1개만! 그럼 처음부터 껌 따위는 붙이지 말고 장난감으로만 팔면 되잖아?

야마모토: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 같아.